

한국경영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성금 1000만원

한국경영원은 10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광주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전달식 행사는 이날 김태균 한국경영원 본부장과 김진곤 광주모금회 사무처장, 김미경 인애빌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시설인 인애빌에서 진행됐다. <사진>

이날 전달된 성금 1000만 원은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애빌 운영비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김미경 인애빌 원장은 “연초 따뜻한 마음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한국경영원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인애빌이 지역사회와 한부모가정을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여성가족재단 제4차 성평등정책 포럼 개최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최근 제4차 전남 성평등정책 포럼 '전남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5개년 동안 전남에서 추진할 양성평등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진>

포럼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직무대행인 김중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어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럼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장은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추진 배경과 경과를 짧게 소개한 이후 약 20여분 동안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중분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도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전남도 차원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아가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전남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현성 기자 chadol@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8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8명을 11일 위촉했다.

이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체부 2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3명,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위촉된 이들은 김진호 전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김찬영 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윤재준 전 경인일보 부사장, 이용성 전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영식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정윤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일용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관호 전남해신문 대표이사다.

위촉 위원을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김찬영(사진) 위원장과 한관호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등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GS리테일, 고려인 마을 취약계층에 이불세트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GS리테일 후원으로 광주 고려인 마을 취약계층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110만 원 상당의 이불 30세트를 전달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제주서 다문화 가족 힐링캠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2박3일간 광주전남 다문화가족 6가구 총 24명과 '2022 적십자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힐링캠프'를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동신대 최진아 교수

한국상담학회 공로상 수상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최진아(사진) 교수가 한국상담학 정칙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상담학회 공로상을 받았다.

아동상담전문가인 최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광주전남상담학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상담자들의 상담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 상담 유관 기관간의 연계를 이끌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최 교수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어려움과 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인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태풍의 신부 스페셜	15 꾸러기 식사교실 45 시간탐험대 다이노맨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금혼령(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법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영상앨범 산(재) 3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이태원 참사 국경조사 공청회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몽계공항 2(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3	00 시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웰리가 간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알쏭달쏭 개치! 티니핑 15 꼬마공룡 크앙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5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50 7학년 주식회사(재)
6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풍의 신부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15 7학년 주식회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7	30 내 눈에 콩깍지	30 세컨 하우스		
8	00 KBS 뉴스9	50 연모(재)	00 다큐 M	00 관계자 외 출입금지
9	00 공영방송 50주년 신년 기획 최초의 질문 50 더 라이브	00 연중 플러스	20 문화콘서트 난장	
10	30 KBS 뉴스라인	00 연중 플러스	20 문화콘서트 난장	
11	10 예셀의 전당(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통합뉴스룸 ET(재)	30 광주MBC 보드 스페셜 50 금혼령(재)	00 나이트라인 30 신년특집 로컬콘텐츠의 미래 컨퍼런스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2일(음 12월 21일 庚午) ☎ 010-9790-8237

<p>36년생 일과 되어야만 유익한 성취에 이른다. 48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0년생 열린 마음으로 처세한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72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 84년생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국면 전환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96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행운의 숫자 : 35, 60</p>	<p>42년생 금권에 휘둘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54년생 행운을 알리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66년생 모든 것을 차지하고 속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78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여러 날이 평안할 것이다. 90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다. 02년생 양 쪽의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지겠다. 행운의 숫자 : 29, 87</p>
<p>37년생 비판적 지지를 하게 되는 판국에 이른다. 49년생 절차대로 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1년생 일관성이 있었다면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케 할 것이다. 73년생 손발이 적적 맞아서 손조로움을 더 하겠다. 85년생 지나 간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97년생 다수인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행운의 숫자 : 37, 97</p>	<p>43년생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체 해야 한다. 55년생 편이한 국면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여지는 있다. 67년생 과격적인 것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79년생 대국적으로 임해야 실속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다. 91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03년생 일단 성사시키고 불일이다. 행운의 숫자 : 24, 96</p>
<p>38년생 완전히 이완시킨 다음에 펼칠 때 오히려 압축 효과가 더 커진다. 50년생 현애가 충실하다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62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우선시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74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86년생 과신함은 참으로 곤란하다. 98년생 우회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1, 70</p>	<p>44년생 현재의 경제성에 구애 받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자. 56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기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68년생 상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80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92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전도양양하리라. 04년생 근거가 없다면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9, 85</p>
<p>39년생 양호한 결과를 낳을 것이니 집중하게 진행해 나가자. 51년생 절제할 줄 알아야만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리라. 63년생 단순한 관점에서의 오관을 주의하자. 75년생 되돌아 갈 수 없는 갈림길에서 있다. 87년생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로써 판단할 일이다. 99년생 파장에 남은 부스끼기만 살피고 있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7, 89</p>	<p>45년생 알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알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57년생 발상을 잊어서 유언하다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69년생 마음을 안정시키고 태산처럼 있노라면 반전되리라. 81년생 절호의 찬스를 잘 활용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93년생 안심해도 된다. 05년생 분명히 이로운 것과 관련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63</p>
<p>40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52년생 노출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형세이다. 64년생 소문은 사실보다 과 되어 퍼져 나가게 마련이다. 76년생 생각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실행하라. 88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00년생 실속은 없고 겉만 번드르르 하겠다. 행운의 숫자 : 11, 93</p>	<p>34년생 재수가 있는 날이니 갈망과 아이템을 잘 선택하여 기회를 잡아 보자. 46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만 한다. 58년생 우회하는 편이 더 쉽다. 70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는 하등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82년생 일부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94년생 착실하게 정진하면 기쁨과 성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69</p>
<p>41년생 절만 활동한다면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 53년생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65년생 돌발적인 변수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다 된 마당에 파탄날 수도 있다. 77년생 인식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못 미치니 안심해도 된다. 89년생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 각오하라. 01년생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4, 80</p>	<p>35년생 물이 사방에 보이나 모두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라. 47년생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59년생 돌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부심하게 된다. 71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83년생 명에 영달이 따를 수도 있는 행운의 날이다. 95년생 작은 것으로 큰것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 38, 82</p>